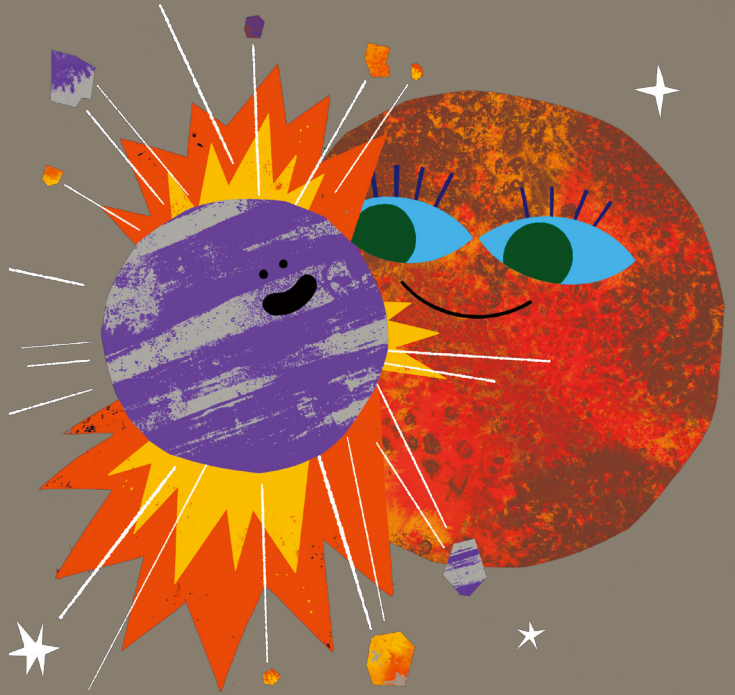


책놀이 활동북

W O R K B O O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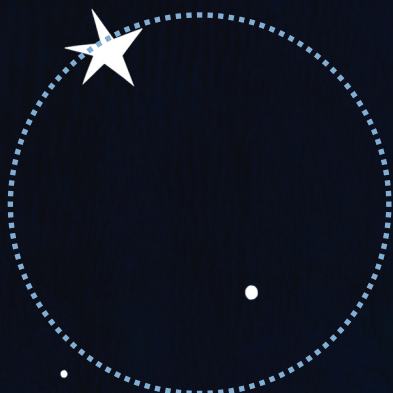
달은 어떻게 달이 되었고, 왜 날마다 모양이 달라질까?

무지무지 넓은 우주 속에서도 우리 태양계에 자리한 지구의 달은 오직 하나뿐이고, 수십억 년 전부터 늘 우리 곁에 함께했습니다. 날마다 씬 없이 지구 둘레를 여행하는 달 덕분에 사람들은 날마다 다른 모양의 달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책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달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달은 어떻게 지구를 돕는지를 조곤조곤 알려 줍니다. 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의인화한 귀여운 일러스트도 달에 대한 친근감을 더해 줍니다. 달과 친구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달 그림책을 만나 보세요.

롭 호지슨 글 그림 | 김민경 옮김 | 16,000원



보름달



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그믐달

◇ 여러 모양의 달을 잘라 왼쪽 페이지에 예시처럼 붙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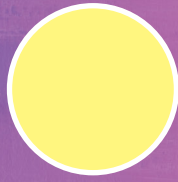
예시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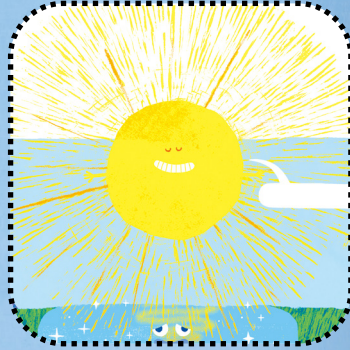
그믐달







◇ 물방울의 여행을 표현한 아래 그림들을 잘라 주세요.



◇ 물의 여행을 순서대로 붙여 볼까요?

1

2

3

4

5

6

7



책놀이 활동북

W O R K B O O K

구름과 함께 여행하며 배우는 물의 순환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고 호수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해가 호수를 쨍쨍 비추기 시작하자 몇몇 물방울이 몸을 식히기 위해 하늘로 솟 떠오릅니다. 이제 하늘에 물방울이 가득합니다. 물방울들은 함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모여들어... 짜잔! 마침내 구름을 이루었습니다. 구름이 되어 기분이 너무 좋은 구름은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때, 구름은 바람을 만납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도 두둥실 떠밀려 갑니다. 이제 구름은 어디로 갈까요? 자연 속 물의 순환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 주는 그림책입니다.

롬 호지슨 글 그림 | 우순교 옮김 | 16,000원

